GLOBAL
EQUITY
STRATEGY

2026. 5. 18

글로벌투자전략팀

전종규 Senior Analyst (중국 전략)
juhn21@samsung.com

글로벌투자전략팀

박혜란 Analyst (미국 전략)
hyerani.park@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5월 미-중 정상회담 시사점

미니 데탕트, 다극화 체제 가속

-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미니 데탕트, 전술적 갈등 관리
- 주요성과: 중국의 농산물/항공기 대량 구매와 일부 규제 완화
- 향후 전망: 다극화 체제 가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잠정적 합의』**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전술적 관리, 잠정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 미-중 양국 정상은 ① 미국산 농산물/에너지/항공기 구매 확대, ② 무역이사회와 투자이사회 설립, 상호관세 인하로 무역 확대, ③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비핵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향후 전망: 다극화 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새로운 질서: 『다극화 체제 가속』** 5.14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의 역학 변화를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18년 트럼프 1기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1차 미-중 무역합의가 도출된 바 있으나 8년에 걸친 미-중 분쟁 기간 동안 중국의 협상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우리는 트럼프 2기에 미-중 분쟁이 사실상 갈등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새로운 질서(New normal)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올해가 미-중 관계 재설정, 경제 분절화와 다극화 체제로의 진입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판단한다.
- **위안화 강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안화 강세와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주목한다. 우리는 위안화의 점진적인 강세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와 풍부한 달러 유동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15년 위안화 시장화 조치 이후 위안화 밴드는 6.2~7.3위안/달러였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중국 기술 고립 정책이 중국의 국산화 촉진, 미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산업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요구사항이 관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바이오 등의 중국 규제를 점차 완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 美 **증시 시선은 다시 매크로로:** 미국 증시 관점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이번 회담은 향후 실적 이벤트 소멸과 금리 급등 등의 재료와 맞물려 시장의 위험선호를 단기적으로 제약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특히 그간 실적과 반도체 주가 질주에 가려져있던 물가와 소비에 대한 우려가 본격 재점화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 일본 등 주요국의 물가 압력이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주식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동안 유가 상승 충격을 상쇄하고 있는 세금 환급 또한 5월 지나면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 둔화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미-중 정상회담

예상된 미니 데탕트

잠정적 합의

-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5.14~15일)이 마무리되었다. 5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온건한 수준의 〈무역 합의〉, 즉 미니 데탕트로 매듭지어졌다.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정치 이벤트와 중국의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니즈를 감안할 때 미-중 갈등 조정은 불가피한 환경이었다.
- **주요 내용: 『잠정적 합의』**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전술적 관리, 잠정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 미-중 양국 정상은 ① 미국산 농산물/에너지/항공기 구매 확대, ② 무역 이사회와 투자 이사회 설립, 상호관세 인하로 무역 확대, ③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비핵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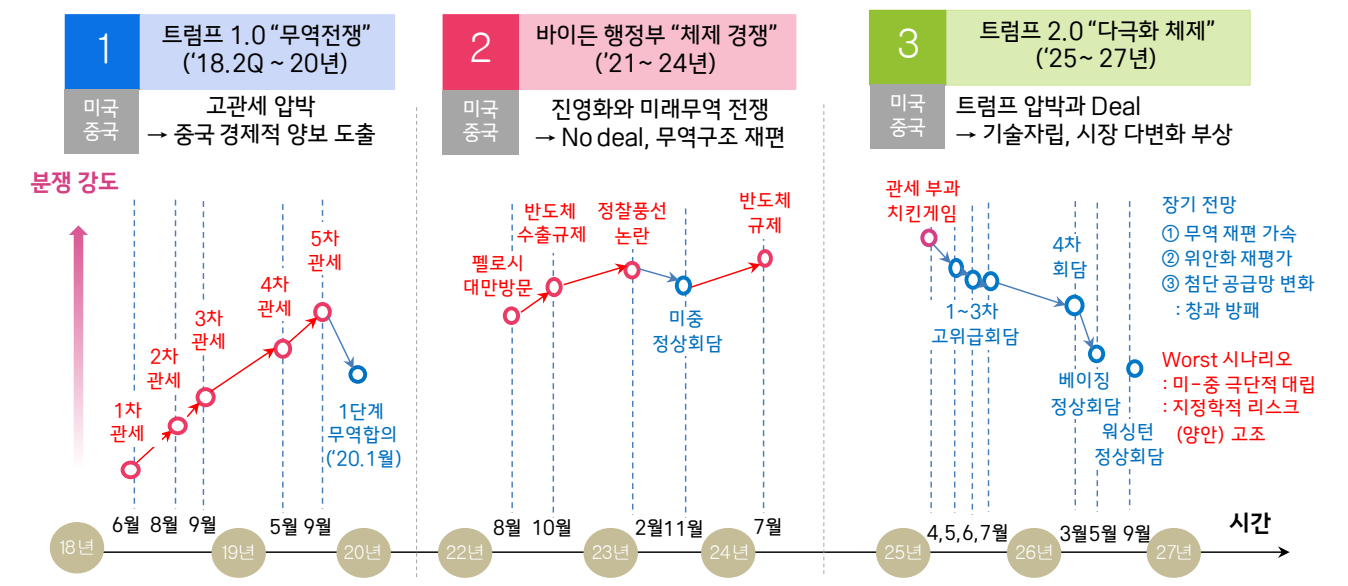
  미-중 양국은 지난해 5월부터 4차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여 고관세 경쟁 자제와 비관세 장벽(희토류, 첨단제조 규제)을 완화시키는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해당되는 대만과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대만 독립 반대가 평화 수호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 첨단산업 규제에 대해서 모호성을 유지하였으나 상무부가 중국 10여개 기업에 엔비디아 H200 판매를 승인하였고 대만 무기판매 승인을 유보한 것은 진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미-중 무역합의의 기한은 9월 24일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으로 대만과 첨단산업 규제완화가 핵심의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성과

구분	주요 내용
경제	• 대 중국 대두, 액화천연가스(LNG), 보잉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 미-중 통상위원회(Board of Trade) 신설, 무역 및 투자 확대 추진
공급망	• 중국 희토류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외교/안보	• 이란 안보 관련, 호르무즈 자유 항행, 이란 비핵화 원칙적 공감 • 대만 문제,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 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모호성 유지

자료: 삼성증권 정리

미-중 분쟁 진행경과: 미-중 갈등 Peak-out



자료: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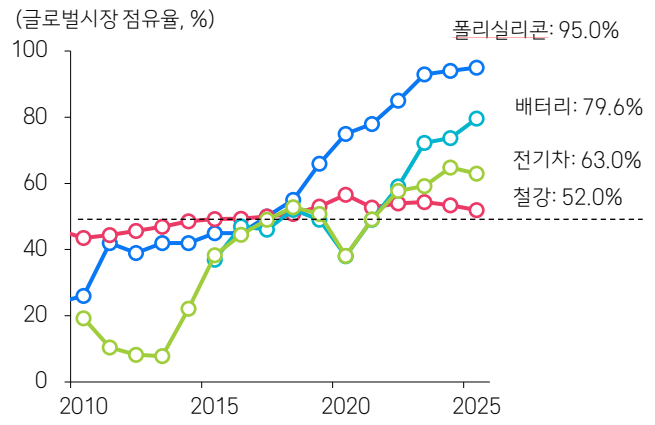
향후 전망

다극화 체계 가속

- **새로운 질서: 『다극화 체제 가속』** 5.14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의 역학 변화를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18년 트럼프 1기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1차 미-중 무역합의가 도출된 바 있으나 8년에 걸친 미-중 분쟁 기간 동안 중국의 협상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7년 19.1%에서 올해 1분기는 9.9%로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의 농산물 구매력은 두 배로 증가되었다. 더불어 희토류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우리는 트럼프 2기에 미-중 분쟁이 사실상 갈등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새로운 질서(New normal)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올해가 미-중 관계 재설정, 경제 분절화와 다극화 체제로의 진입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판단한다. 미-중 양국은 9.24 워싱턴 회담과 4분기 두 차례 다자간 정상회담이 예고되어 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안화와 첨단제조』** 5월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지난 '20년 1월 합의된 1차 미-중 무역합의[1]보다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8년 간의 미-중 관계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다. 포스트 미-중 분쟁의 국면에서 위안화 강세와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주목한다. 우리는 위안화의 점진적인 강세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7,350억 달러에 달하는 풍부한 달러 유동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15년 위안화 시장화 조치 이후 위안화 환율 밴드는 6.2~7.3위안/달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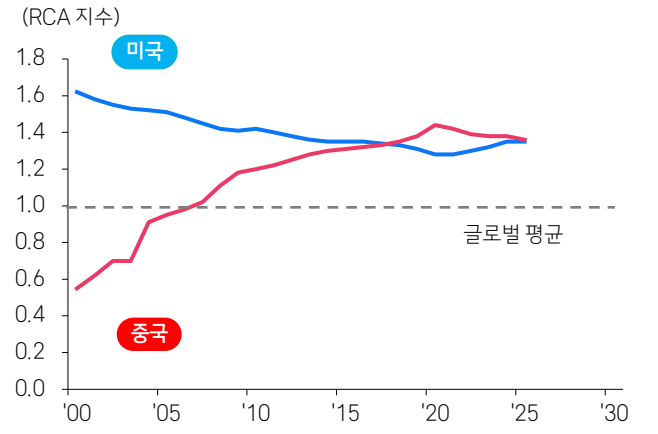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대중국 고립정책이 중국의 국산화 촉진, 미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산업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요구사항이 관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바이오 등의 규제를 점차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로보틱스/바이오/친환경 밸류체인의 주가가 상승하였다. 중국의 15.5 산업 고도화 정책과 맞물려서 중국 첨단제조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공급망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변화



참고: '26년 4월 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중국, 하이테크 수출경쟁력 글로벌 1위 등극



참고: 1965년 벨라 발리사 교수, 하이테크 수출 비중으로 고안한 지표
자료: UN Comtrade, World Bank WITS

[1] 미중 1차 무역합의: '20년 1.15일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 1단계 무역협상 합의안 공식 서명. 주요내용은 1) 무역수지 조정, 2) 환율 조정, 3) 금융시장 개방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적되었던 지적재산권 강화와 기술이전 방지로 구성. 합의사항 snap back 조항 삽입하였으나 3대 불공정 시정(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산업 보조금 지원) 미흡

美 증시 시선은 다시 매크로로

이번 회담은 양국간 기울어진 협상 구도가 여실히 드러난 협상이었다. 해방의 날 이후 무역 공급망 다각화에 성공한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적 이익보다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다 우선 순위에 두었다. 반면,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정치적 부담이 높아진 트럼프는 경제 현안을 내세우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미국 주식시장 관점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이번 회담은 향후 실적 이벤트 소멸과 금리 급등 등의 재료와 맞물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및 시장의 위험선호를 단기적으로 제약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오는 20일(美 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많은 기업들이 폭발적인 AI 수요로 사상 최대 실적과 사상 최대 주가를 기록했다. `20년 이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시장 예상을 모두 상회했던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AI 수요 확대 속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3년 들어서는 실적 숫자에 대한 높은 기대 탓에 긍정적인 주가 반응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엔비디아였기에 잠시 주춤한 반도체 열기를 다시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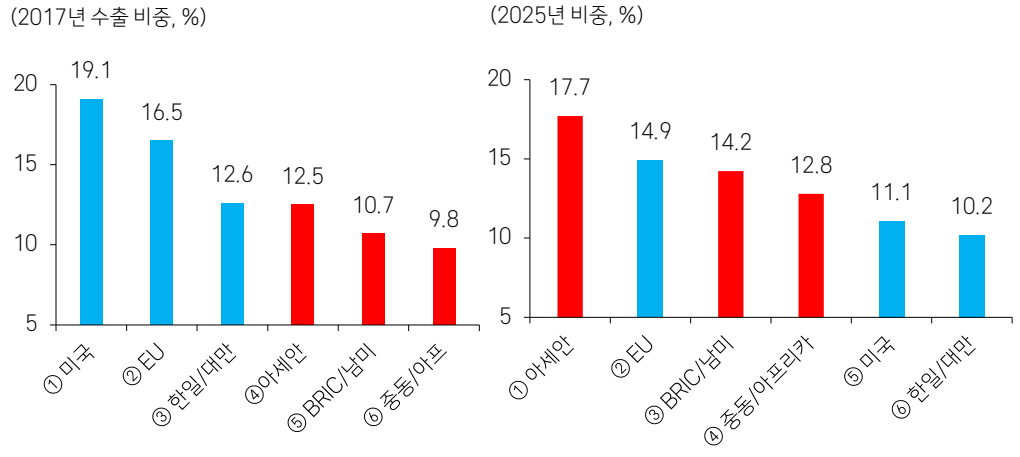
실적과 미-중 정상 회담에 쏠려 있던 시장의 관심은 매크로로 다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그동안 실적에 가려져 있던 물가와 소비에 대한 우려가 본격 재점화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주요국의 물가 압력이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로 미국 국채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해 주식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은 지난해 대비 높은 세금 환급 효과가 유가 상승 충격을 상쇄하고 있었지만 5월이 지나면서 상쇄 효과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휘발유 소매가가 갤런당 4달러를 2개월째 상회하고 있고, 과거 동일한 국면에서 갤런당 4달러 이상의 휘발유가가 2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자동차, 가구/가전제품 등 비필수 내구소비재의 소비 약화가 두드러졌다. 이번 주 주요 유통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소비 전망이 주목된다.

드라마틱한 중국 무역구조 변화

수출비중(%)	'17년 *미-중 분쟁	'25년 *트럼프 2기	'26,1Q	'25년 수출액 (십억 달러)	'17~25년 CAGR (%)
미국	19.1	11.1	9.9	420.3	(0.4)
EU	16.5	14.9	15.1	560.2	5.2
한국+ 대만 + 일본	12.6	10.2	10.8	385.6	2.9
소합	48.3	36.2	35.8	1,381	
아세안	12.5	17.7	18.0	666.3	11.3
BRICS +남미	10.8	14.2	14.0	536.9	10.4
중동 + 아프리카	9.8	12.8	12.4	483.8	10.2
소합	33	44.7	44.4	1.687	
홍콩	12.5	11.6	10.1	337.1	2.2
합계				3,770.60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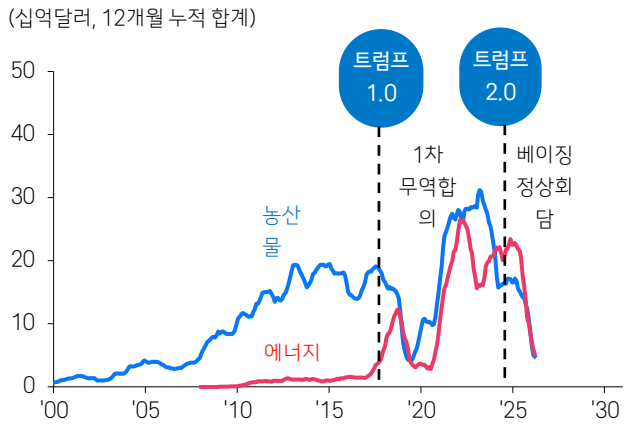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증권

현저하게 낮아진 대미 수출의존도, 미국 수출비중 다소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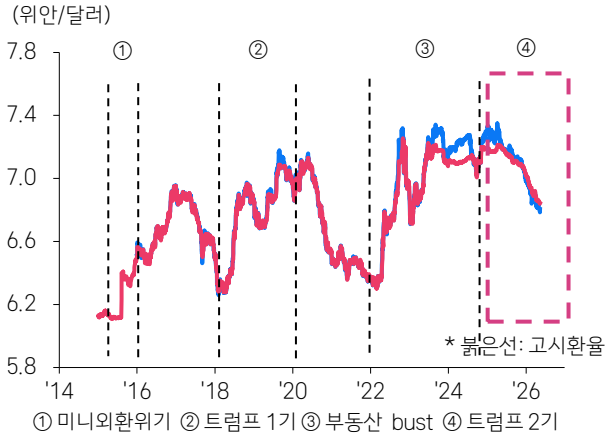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증권

중국 대미 농산물 수입재개 전망



참고: '26년 1분기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위안화 환율, 23년 이후 최고수준



참고: '26년 5월 15일 기준
자료: Wind,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